

정읍 옛 우체국 부지 시민광장으로



장기간 활용 방안을 찾지 못했던 정읍시의 옛 우체국 부지.



녹지·쉼터·소규모 무대 등을 갖춘 새암달빛 조각도.

지역개발사업 공모 선정...총 11억원 투입해 '새암달빛광장' 조성
녹지·쉼터·무대 갖춘 광장 지역상권 연계 축제·플리마켓 등 개최

장기간 활용 방안을 찾지 못했던 전북 정읍시의 옛 우체국 부지가 시민들을 위한 도심 속 '핫플레이스'로 변신한다.

정읍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지역개발사업(소규모 지역수요 맞춤형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7억원을 지원받아 옛 우체국 부지에 녹지·쉼터·소규모 무대 등을 갖춘 광장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지역수요 맞춤형지원사업은 인구감소 우려 지역에 특화·고유자원을 활용해 활력을 불어

넣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소규모 분야는 단기간에 사업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올해 신설됐다. 전국 7개소 내외를 선정해 최대 7억 원의 국비를 지원한다.

시는 2027년까지 3년간 국비 7억 원과 시비 4억 원 등 총 11억 원을 투입해 옛 우체국 청사 부지 1995㎡에 '새암달빛광장(가칭)'을 조성해 시민들의 만남과 소통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예정이다. 광장에는 화랑형 쉼터·공원녹지·소규모 무대 등이

함께 들어선다.

시는 그동안 도심권에 시민들을 위한 녹지 휴식 공간과 다수가 소통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시의회·지역주민·상인회·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사업을 계획했다. 새로 조성될 광장이 지역 상권과 연계한 축제나 플리마켓 등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의 장으로 활용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이번 사업이 좁은 도심 도로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새암길과 중앙로 상권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정읍 축산농가 15곳 선정 조사료 스팀가공장비 지원

정읍시가 볏짚을 스팀으로 가공해 축산물 품질과 사료 효율을 높이는 '조사료 스팀가공장비 지원사업' 대상 축산농가 15곳을 선정해 장비를 지원했다.

이 사업은 볏짚을 고온·고압의 스팀으로 처리해 조사료의 소화율과 기호성을 개선해 가축의 건강을 증진하고 사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 대상은 한육우·낙농 50두, 양·흑염소 300두, 사슴 50두 이상을 사육하는 축산농가다.

농가 보조금은 50%로 1대당 최대 660만원 한도 내에서 자부담한 후 장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접수된 28개 농가 중 사육두수와 농가별 특성을 반영한 배점 기준에 따라 15곳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농가는 사육 환경과 규모에 맞는 장비를 선택해 조사료를 자체 가공·급여할 수 있게 됐다.

정읍시농업기술센터 이용관 소장은 "조사료 스팀가공장비는 축산물 품질 향상뿐 아니라 사료비 절감 효과까지 기대되는 장비"라며 "앞으로도 정읍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새단장



고창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오늘 재개장...일요일도 운영

고창청소년수련관 수영장이 새 단장을 마치고 재개장한다.

고창군은 13일 고창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시설을 재개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군은 지난 5월부터 총 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낡고 오래된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시설을 재 정비해 왔다.

보수공사를 통해 수영장 수조와 내부 베타일이

교체됐으며, 샤워실과 탈의실, 매표소를 새롭게 단장했다. 수영 강사와 안전요원 배치 등 전반적인 관리도 세심하게 정비했다.

군은 평일 이용이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오는 9월까지의 일요일에도 운영할 예정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재개장한 수영장은 군민의 일상 속 체육 참여를 늘리는 의미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9월 도민제전을 앞두고 군민 모두가 함께 즐기고 준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정읍 사고 농업인에 영농도우미 파견

최대 10일...하루 8만4000원 인건비 중 85% 지원

정읍시가 질병·사고 등으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농업인 복지 향상과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 사업은 농업인의 사고나 질병 발생 시 전문인력을 파견해 영농작업을 대행해 주는 제도다. 일시적인 일손 공백을 해소하고 농가의 소득안정과 가정생활 유지를 함께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지원 대상은 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의 농업인 중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암·심장질환(고혈압 제외)·뇌혈관질환·허위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 후 최근 6개월 내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다. 1일 이상 '농업인 교육과정'에 참여한 여성농업인도 지원받을 수 있다.

영농도우미는 하루 8만4000원의 인건비 중

85%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10일간 이용할 수 있다.

이용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는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와 진단서·입원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거주지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파견된 영농도우미는 신청 농가의 실제 작업을 대행하며 신청자가 직접 추천한 인력으로 우선 배치할 수 있어 작업의 연속성과 효율성도 높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농도우미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라며 "영농작업의 공백을 줄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농촌의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장수풍뎡이·사슴벌레와 가상 대결

남원시, 24일까지 자생곤충전 이벤트...게임 참여자 추첨 경품

남원시가 여름방학을 맞아 자연 속 생태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온라인 참여형 콘텐츠를 통해 생태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특별한 이벤트를 선보인다.

남원시는 오는 24일까지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과 '지리산 허브밸리'에서 열리는 '백두대간 자생곤충전'과 연계해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는 백두대간 생태계의 핵심인 곤충을 주제로 한 특별기획전 '백두대간 자생곤충전'을 소개하고 시민과 관광객이 생태의 가치와 보호 필요성을 자연스럽게 체험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참여자는 남원시 누리집(홈페이지)과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이벤트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으며 숲속의 영웅 장수풍뎡이와 줄다리기 게임의 게임을 비롯해 사슴벌레, 나비 등 다양한 곤충 캐릭터와의 가상 대결을 체험할 수 있다. 게임 참여자 중 일

부에게는 추첨을 통해 경품도 제공된다.

이와 함께 진행 중인 '백두대간 자생곤충전' 특별기획전은 산림청 후원과 녹색자금 지원을 통해 운영되며 50여종, 1000여 마리의 곤충과 지리산의 다양한 나비 등을 직접 만나볼 기회를 제공한다.

전시는 오는 31일까지 남원시의 백두대간 생태교육장과 지리산 허브밸리 두 곳에서 동시 운영되며 누구든지 입장할 수 있다. 관람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매주 월요일은 휴관(단, 광복절은 정상 운영)이며 입장료는 무료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번 여름방학은 아이들과 가족이 함께 숲속 곤충들을 직접 보고 체험하며 생태 환경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방문해 백두대간과 지리산의 생태적 가치와 서식지 보전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남원시, 음식점 31곳 위생 점검

식중독 예방 위해 손씻기·식품 보관온도·가열조리 등 수칙 홍보

남원시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오는 14일까지 식중독 예방을 위해 달걀 취급이 많은 관내 김밥 음식점과 냉면 전문점 등 31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벌인다.

남원시는 이번 점검에서 식품위생에 관심과 경합이 풍부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명을 식중독 예방 소문전담관리원으로 지정, 교육자료 배포와 업소별 맞춤 위생지도도를 함께 펼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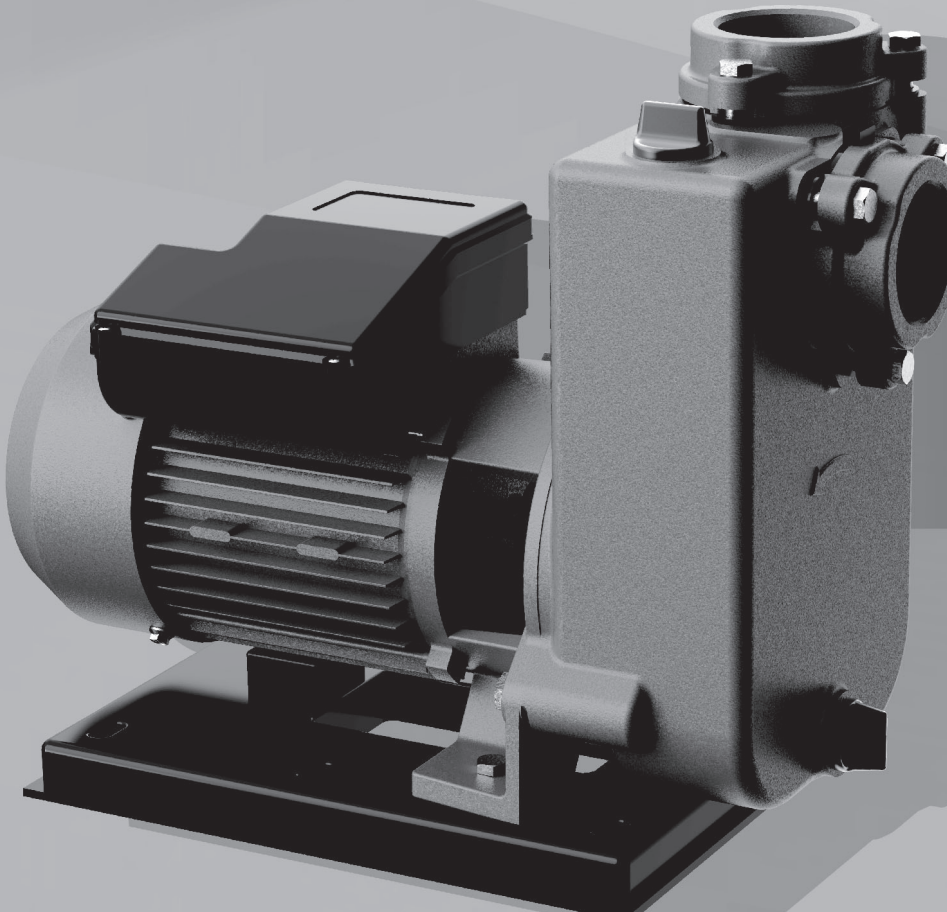
또 음식점소들이 달걀 취급 시 주의사항과 안전한 조리요령, 살모넬라 및 병원성대장균 식중독 주의사항은 물론, 손씻기·보관온도·구분사용·가열조리·세척 및 소독 등 5대 예방수칙의 앞글자로 만든 '손보구가세'를 적극 알린다는 방침이다.

특히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 발생이 잦은 여름철 특성을 반영, 달걀 등 식중독 고위험 식재료의 취급·보관 위생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다.

살모넬라균은 주로 물, 토양, 가금류의 소화관 등에 존재하며, 오염된 식품 섭취 시 발열,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남원시 보건소 관계자는 "살모넬라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육류나 달걀 등은 중심온도 75도에서 1분 이상 충분히 가열 조리해야 한다"라며 "달걀 취급 전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조리도구는 구분해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